30돌 현대불교 "뉴미디어로 부처님 법 전하겠습니다"

특집 화보

글=김가령 기자 · 사진=유재상 충청지사장

"현대불교신문은 교계 언론 중 최초로 불교 포털 사이트 '부다피아'를 개설해 선도적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AI시대를 맞아 새로운 불법 홍포의 장을 여는 뉴미디어 언론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1994년 창립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기치로 불법 홍포에 앞서온 현대불교신문이 30살 청년이 됐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다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뉴미디어 불교 언론'으로 거듭날 것을 선포했다.

현대불교신문(대표 한명우, 발행인 혜도 스님)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현대불교신문 창간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창간 30돌을 맞은 현대불교신문을 축하하는 동시에 새로운 불교언론지로 재도약함을 알리는 자리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총무원 주요 소임자 스님과 각 종단 대표, 한마음선원 스님들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이 모여 현대불교신문의 30주년을 축하했다.

12월 18일, 서울 HW컨벤션센터서
총무원장 스님 등 300여 명 참석
30년 史 회고, 발전 공로자 시상도

기념식은 개회사와 한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환영사 △30년 역사 영상 시청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치사 △축사와 축하 영상 △공로패 시상 △비전선포식과 축하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현대불교신문 30돌을 축하하는 내빈들에 환영 인사를 전했다. 혜수 스님은 "30년 전 대행 선사의 원력으로 문을 연 현대불교신문은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들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든든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현대불교신문 30돌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부대중의 응원에 힘 입어 임직원과 함께 더욱 성장하는 신행·포교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현대불교신문이 한국불교 미디어 포교의 중심이 되길 주문했다. 진우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은 종단과 전국 사찰들의 소식, 생생한 신행·포교 현장을 독자들에 전하며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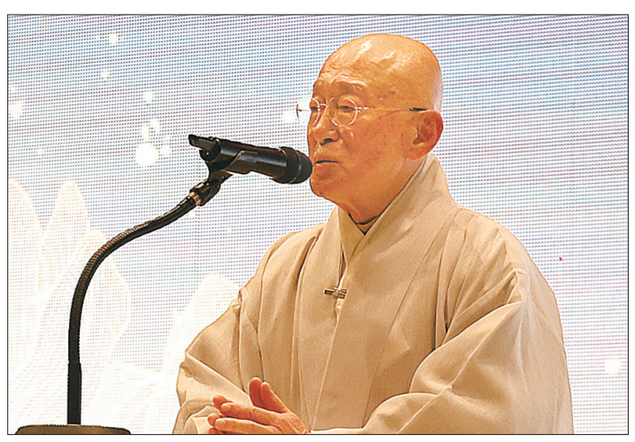
▶A5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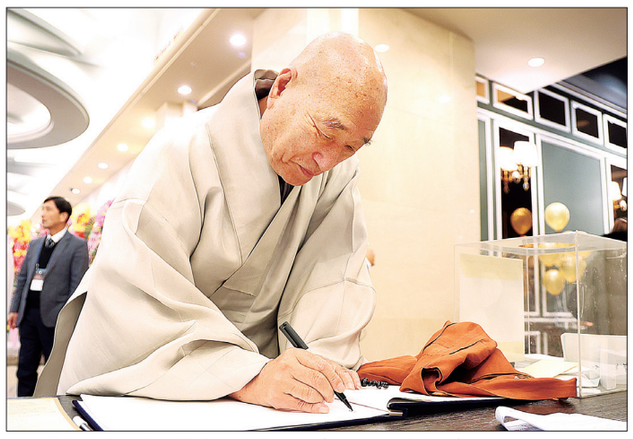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발행인 혜도 스님, 대표 한명우)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현대불교신문 창간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는 동시에 새로운 불교언론지로 재도약함을 알리는 자리였다. 사진은 행사 후 기념 사진 모습.


치사하는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축사하는 능원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축사하는 법명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축사하는 돈관 스님(동국대 이사장).


방명록에 축하메시지 전하는 일면 스님(생명나눔 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韓國佛教太古宗

宗正 雲耕

僧正院長 錦龍
首席副議長 靑峰
次席副議長 慧雲
僧正 智山,海耕,雲岩,知足,智巖,修庵,圓默
雪雲,普經,南坡,三學,法蓮,圓峰,守敏
守悅,宗演,知足,慧雲,大隱

元老會議 議長 虎溟
首席副議長 智玄
次席副議長 性悟
議員 法京,能華,東佑,祥明,雲山,玄虎,錦明
道光,觀正,會梵,慧周,雪峯,雪山,碧山
月峰,一雲,瑞峰

中央宗會 議長 始覺
首席副議長 法輪
次席副議長 慧祐

護法院長 導鶴
副院長 瑞虎
委員 惺應,晩愚,六和,松憲,淸虎,慧學,智峰

初審院長 錦潭
副院長 杲峰
委員 古潭,哲悟,蓮虛,曉門,晩松

中央選擧管理委員長 九山
副委員長 智海
委員 法一,智勤,寶月

總務院長 常眞
行政副院長 能解
總務部長 道惺
敎務部長 正眼
財經部長 曉能
司書室長 圓悟
文化部長 月陀
社會部長 道輝
弘報部長 呑默
糾正部長 眞華
比丘尼部長 現潭
校任·傳法師部長 心圓

宗正禮敬室長 東虛

敎育院長 才弘
副院長 智觀
布敎院長
考試委員長 休完
法規委員長 正雲
社會福祉院長 聖海
副院長 鏡月
佛敎文藝院長 智虛
副院長 六和
東邦佛敎大學學長 法潭
敎學處長 哲悟
韓國佛敎新聞社長 淸湖
太古文化遺産傳乘事業團長 龜巖
全國比丘尼會長 玄仲
全國校任傳法師會長 振話
全國信徒會
靑年會長 李承潤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